

잡아함73. 중담경

날짜: 3월 10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8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무거운 짐과 짐을 짊어짐과 짐을 버림과 짐을 짊어진 자에 대해서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너희들을 위해 설명하리라.

무엇이 무거운 짐[重擔]인가? 이른바 5수음이다. 어떤 것�이 다섯 가지인가? 색(色)수음 · 수(受)수음 · 상(想)수음 · 행(行)수음 · 식(識)수음이다.

무엇이 짐을 짊어진다는 것인가?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當來有愛]에 기쁨[喜]과 탐욕[貪]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는 것이다.

무엇이 짐을 버린다[捨擔]는 것인가? 만일 미래의 존재를 받게 하는 애욕에 탐욕과 기쁨이 함께하여 이것저것을 즐거워하고 집착하면 그것을 남김없이 영원히 끊어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 토하며 탐욕을 떠나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누가 짐을 짊어진 자[擔者]인가? 이른바 사람[士夫]을 말하는 것이니, 사람이란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하게 태어나 이러한 족성(族姓)으로 이러한 것을 먹으며,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겪고 이러한 수명을 누리다가 이러하게 오래 머무르

며, 이러한 수명의 마침(壽終)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무거운 짐, 짐을 짊어짐, 짐을 버림, 짐을 짊어진 자라 하느니 라.”

그때 세존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미 무거운 짐 버렸거든, 다시는 그것 짊어지지 말라.
무거운 짐은 큰 괴로움이요, 짐을 버림은 큰 즐거움이네.
마땅히 모든 애욕을 끊어라, 일체의 행(行)은 이내 끝나리.
존재의 남은 경계 환히 알면, 다시는 존재로 돌아오지 않으리.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